

최순영의 이야기 나누기 ⑮

민주노동당, 청소년과 만나다.

경쟁적 입시제도 대안미련을 위한  
청소년대표 초청토론회

일시: 2005년 6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 청소년위원회(준)

민주노동당, 청소년과 만나다.

경쟁적 입시제도 대안미련을 위한  
청소년대표 초청토론회

##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 깊은 자리입니다. 언제나 교육정책의 수동적 주체로만 간주되어 왔던 학생들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역사적인 큰 변화는 청소년들이 함께 움직일 때 가능했습니다.

입시문제는 우리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대학을 가냐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학벌주의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뿐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입시문제는 학벌주의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5월 촛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다는 것은 억압을 인지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한 실천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또한 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06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대표 김 혜 경



## 민주노동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청년학생 담당 최고위원 유선희입니다. 이 자리에 참가하신 청소년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더구나 새로 바뀐 입시제도 때문에 고1학생들 교실이 삭막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기말고사가 시작되네요. 지난 중간고사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며 너무 마음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삶에 유익한 양질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학교생활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 학생들을 죽이는 교육으로 가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여러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교육은 아니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경쟁적 입시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청소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노동당이야말로 이제부터는 청소년여러분과 어려움을 나누는 친근한 벗이 되고 때로는 함께 외치며 때로는 청소년들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민주노동당의 마음을 담아서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한 자리입니다. 마음껏 외치고 주장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06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유 선희**

## 자료집 구성

### [환영사]

- 김혜경 ..... 1
- 유선희 ..... 2

### [주제발표문1]

- 최순영 ..... 6

### [주제발표문2]

- 이철호 ..... 8

### [주제발표문3]

- 김영운 ..... 28

[패널토론문]

- 남궁정 ..... 30
- 윤태우 ..... 36
- 이아라 ..... 41

[의견투표]

- 청소년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47

[참고자료]

- 1. 고교생 촛불집회 관련 최순영의원 공개편지(05/07) ..... 48
- 2. 불법제화 발의 및 대학입시관련 기자회견문(05/18) ..... 53
- 3. 3불법제화 고등교육법 개정안(최순영의원 대표발의) ..... 56
- 4. 3불법제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안설명문 ..... 67

## 토론회 순서

사회: 구정인(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장)

- ◎ 입시문제에 대한 영상상영
- ◎ 환영사  
김혜경(민주노동당 대표)  
유선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 ◎ 주제발표  
**“대학입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해결방안”**  
이철호(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2008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김영운(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 패널토론  
남궁정 (민주노동당 청소년당원)  
윤태우 (내신등급제 반대 카페 운영자)  
이아라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대표)
- ◎ 종합토론 및 청소년 자유발언대
- ◎ 의견투표

# 대학입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최순영<sup>1)</sup>

## 1. 문제의 핵심은 대학서열화

- 입시문제는 대학구조에 대한 변화 없이는,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학벌주의의 해체 없이는 입시문제는 해결을 할 수 없음
- 어떤 대학을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가 이후의 여러 권력(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을 획득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 있는 사회: 학벌주의
- 따라서 입시문제의 해결은 대학서열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예-국립대통합 네트워크, 대학평준화 등)와 함께 고민되어야 할 것임.

## 2. 3불 정책에 대하여

- 3불정책은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 고교등급제: 고교등급제의 시행은 -> 고교 평준화 체제의 해체 ->고교 간 서열화 -> 초중등 교육에서의 고교입시 전쟁 부활과 사교육 급증으로 이어질 것임. 따라서 고교등급제는 고교평준화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고리임. 따라서 고교등급제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 필요.
- 기여입학제: 일부 대학에서 논의되고 있음. 학벌주의 사회에서 기여입학은 권력을 통하여 학력을 구입하고, 이후 이 학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확대하는 방법이 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금지제도 필요.

1)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대학별 본고사: 교육부는 대학별 본고사 금지 원칙을 천명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를 시행해왔던 것이 사실. 그리고 서울대의 논술현 본고사 실시에 대하여 교육부는 타협하는 자세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 따라서 교육부의 명확한 정책집행의지와 법제화 필요.

## 3. 08 대학입시안에 대한 긴급 제언

- 3불법제화, 교육부의 명확한 정책 집행.
- 내신 실질 반영률 최하한선 확정 및 강제 필요.
- 수능은 자격고사화 하고, 내신 중심의 입시체제가 정착되면 폐지.
- 대학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 전형 기준을 마련.
- 통합전형 실시: 현재의 학점교류, 학생 교류의 폭을 넓혀서 대학들 간의 통합전형을 실시하여 대학 서열체제를 해체해 나가야 할 것임. 08년부터 현재의 각 지역 4년제 국립대학간의 통합전형, 각 교육대학 간의 통합전형을 실시 -> 추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및 대학평준화 추진.
- 내신: 상대평가를 최소화. 학생에 대한 전인적인 성장기록으로 실질화.

## 4. 마치며

- 학생은 교육정책의 수동적 대상자가 아닌 교육활동의 명확한 주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해결방안

이철호<sup>2)</sup>

## 1. 들어가며

2004년 10월 28일 교육부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2008년 이후 적용될 대입제도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가 나자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이 제도가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근원이자 대학입시 경쟁의 본질인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단체들은 교육부의 방안은 문제해결은 커녕 입시제도 절차만 변경함으로써 학교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져올 것이기에 입시안을 서둘러 확정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입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논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요구 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벌써 현실화되고 있다.

2005년 수능은 대규모 부정으로 얼룩져 그 정당성을 의심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학교에서는 내신 조작 등의 사건이 발생했고, 대학별 전형의 과정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있음이 밝혀졌다. 입시전형의 3단계 모두에서 부정이 발생한 것이다.

더하여 고등학교는 물론 초·중학교까지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교육 수요는 늘어가고 있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를 앞두고는 건

2)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더내기 힘든 중압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스스로 촛불을 켜들고 '입시교육의 노예' 이길 거부하였다.

대입 혼란의 또 한 축은 2004년 밝혀진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의 문제이다. 단체들은 교육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3불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기에 이는 분명하게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원칙만 확인할 뿐, 법제화에는 반대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 기득권층들은 오히려 최소한의 규제인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입을 둘러싼 문제의 발단은 교육부가 제공한 것이다. 이번 입시안이 내신9등급, 수능9등급, 내신비중강화, 대학별 전형의 강화라는 서로 모순되는 기조를 한데 섞여 있기 때문이다. 방향은 대학의 자율적인 선발을 보장하는 방향이면서도 마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대학 측의 요구를 모두 조화시킨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내신의 실질반영 비중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대학별 본고사에 관한 분명한 기준, 각 대학의 전형안의 확정 등이 필요했다. 그러나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 서울대가 지난 4월 지역균형선발,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을 각 1/3로 하여 선발한다는 2008년 입학전형방침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시모집에서 논술형 본고사의 비중을 강화하고, 내신의 실질반영 비중을 높이지 않으며, 동일계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등 교육부 입시안에 위배되는 것이다. 서울대의 2008년 입시방침 발표가 나자 각 대학들은 '대학의 자율권'을 내세우며 서울대의 논술형 본고사 강화방침을 환영하고 나섰다.

이처럼 갈등의 핵심이 된 입시논란의 이 논란의 주요 지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본다.

## 2. 2008 대입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1) 대학입시제도 변천 과정을 통해 본 교훈

다음은 정부 기구인 교육혁신위에서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경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학년도 (준속기간)	개정의 의도	내용	문제점
'45~'53(9년)		대학별 입학시험	부정입학 문제
'54	학사부조리 예방	대학입학연합고사 + 대학별 본고사	연합고사 결과 백지화
'55~'61(7년)	실패한 연합고사의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본고사 + 내신(권장)	학사부조리, 대학간 격차, 입시위주 교육
'62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	성적우수자 탈락 비인기대학 등 정원미달
'63	학사부조리 예방 교육의 효율성 대학자율	대학입학자격국가고사(대학입학정원의 100%만 합격) + 대학별 본고사	대학(학과)간 극심한 학력차
'64~'68(5년)	실패한 국가고사의 시정 대학자율	대학별 고사	학사부조리, 일류대 집중, 입시위주교육
'69~'72(4년)	교육의 효율성 학사부조리 제거	대학입학예비고사(자격시험) + 대학별 본고사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
'73~'80(8년)	자격시험의 부작용 시정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합격선 상존) + 본고사 + 내신	입시의 이중부담, 과열
'81	과열과의 해소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예비고사(선시험) + 내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82~'85(4년)	예비고사 개선 (선발의 타당도 제고) 무의미한 합격선 폐지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	입시혼란 적성무시 지원
'86~'87(2년)	내신의 문제점 보완 교육의 효율성	대학입학학력고사 + 내신 + 논술	대학의 선발기능 약화, 편중지원 및 미달, 논술 미흡
'88~'93(6년)	선시험의 부작용 시정 논술의 문제점 개선	대학입학학력고사(선지원) + 내신 + 면접	대학의 선발기능 미흡, 면접의 기능 미흡
'94~'96	학력고사 개선 대학자율	대학수학능력시험 + 내신 + 본고사	과열과의, 수능과 본고사 중복
'97~'01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02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 학교생활기록부 + 논술 + 추천서 + 심층면접 등	학생부 반영 비중 미흡 사교육 과열

표를 보면 우리 나라 대입제도는 정말 다양하게 자주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주 바뀐 이유 또한 다양한 듯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언제나 이전 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역사는 실패한 정

책의 여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입시제도는 입시경쟁을 매개하는 현상일 뿐 그 본질이 아니다. 따라서 대학입시의 방법을 이리저리 바꾸는 '입시제도 개선 방안' 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시제도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시험의 방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에 매달려 왔다.

지금의 입시경쟁의 본질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기에 시험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경쟁의 방법을 개선한다고 해서 경쟁자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무한 입시경쟁의 본질은 한 마디로 대학서열체제이다. 전국의 대학들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체제로 되어 있고 학벌주의의 포로가 된 모든 학생들이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무한 경쟁이 없어지겠는가. 무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전제는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 2) 2008년 이후 대입제도의 기본 틀

2008학년도입시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 확대
  -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 「원점수 + 석차등급제」 도입
  - 원 점수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제공
  - 석차등급은 9등급으로 제공
  - 교사의 교수 - 학습계획 및 평가계획·내용·기준을 사전에 공개
  - 독서매뉴얼을 개발하여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 수능성적은 9등급으로만 제공 <백분위, 표준점수 미제공>
  - 출제방식을 문예은행식(item-bank) 체제로 전환
  - 연2회 실시 및 2일에 나누어 시행하는 방안 검토
- ③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
  -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대입전형의 전문화 체제 강화
  - 특수목적고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일반계 고교 학생 지원 가능)



- 과학고 : 이공계열 , □ 외국어고 : 어문계열

○ 사회통합을 위한 전형 활성화

### 3) 2008 대입안을 둘러싼 여러 입장

(1) 학생 - 고교생들은 내신상대평가등급제로 인한 중압감 때문에 내신등급제와 입시경쟁을 비판하며 경쟁완화를 요구하는 촛불시위(2005년 5월 7일 시작)를 벌였다. 이는 입시지옥에서 고통을 받아 온 학생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 것이기에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호소에 답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내신중심대입시안을 반대한다고 해서 특별히 주장하는 입시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신제 무력화 된다고 해서 논술, 심층 면접 본고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부 - 교육부총리는 논술형 본고사를 옹호하다가 내신등급제반대집회를 맞아 다양한 대학별 전형을 강조하다가 다시 내신비중을 강조하는 등 상황전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말을 바꾸고 있다. 교육부 혼란을 막기 위해 서둘러 대학별 전형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 이시간까지도 각 대학들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5월27일, 한 인터넷언론과의 토론회에서 “대학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고 밝혔다.

또한 2008년 입시안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대의 전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거나, 내신의 반영비중을 높이면서도 대학별 자율은 확대하겠다고거나, 대학별 본고사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등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3) 대학들 - 지난해 서울대는 신입생 대부분이 ‘서울 강남지역거주하고 아버지가 고학력자이며 어머니가 전업주부’ 라고 밝혔다. 2005년 3월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고교등급제는 반대하지만 특목고는 우대하겠다고 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대 전형안에서 내신반영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대는 논술형 본고사를 고집하며 지역균형선발제와 특기자전형, 논술형 본고사

의 비율을 1:1:1로 뽑는다고 발표함으로써 2008년 대학 입시안이 사실상 무력화될 위기에 있다.

2008입시안의 긍정적인 면의 하나는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에 따른 「입학사정관제」 도입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이의 구체적 실행방안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며, 오직 대학별 학생선발권 자율과 대학별고사의 부활만을 외치고 있다.

### 3.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입시제도에 관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두 가지 신화가 있다. 하나는 입시제도가 바뀌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입시제도 변경의 목적이 입시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가 바뀌면 바뀐 제도에 관한 정보와 적응이 필요하다. 이는 가용할 수 있는 정보력과 자원의 차이에 따라 빠르게 적응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차별을 만들어 낸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독서평가에 대비하여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강남의 독서지도 사설업체들을 보라. 또한, 서울대의 전형요강이 발표되자마자 벌써부터 서울대 논술대비 특별 프로그램이 들썩거리고 있다.

또 하나는 입시제도가 복잡하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가정해 보자. 무시험 추첨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면 개인적인 차별은 존재할 수 없다. 조건을 하나 선정하게 되면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이 시작된다. 그러나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쟁은 비교적 간단할 수 있다. 여기에 조건을 몇 개 더 붙이면 문제가 다르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차이에 의해 승부가 드러난다. 현행 대입제도는 내신, 수능, 그리고 대학별 전형이라는 모든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게다가 각 단계마다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 하기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학습 부담과 사교육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 AP제도라고 하는 심화과목 이수제를 더하면 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마련이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인 우리 현실에서 대학입시경쟁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열 상위의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권력획득에



유리한 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는 가능한 모든 변수를 힘닿는 대로 준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이제 대학입학에 필요한 세 가지 전형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자.

### 1) 학교생활기록

우리는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아무런 의문 없이 교육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학지도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생활기록부를 기록해 왔다. 그러나 내신 즉 학교생활기록은 법에 의해 기록되는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와는 다른 이유로 기록되고 있다. 지침에 의해 규정에 의해 현행 고등학교는 일정한 방식에 의해 학생들의 서열을 구분하여 의무적으로 대학에 제공하게 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훈령 제616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은 시행지침을, 각급 학교는 성적관리규정을 통해 각급 학교가 규정된 방식에 의해 학생들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중 지필평가에 대하여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력을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담당 교사간 공동출제로 학급의 성적차를 최소화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 문항수 증대, 문항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 배열에 유념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급학교의 학생 학업성취평가에서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을 위해서 필요한 전형 자료를 하급학교가 작성하도록 법(초중등교육법 제 25조)에서 강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형자료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지필고사의 경우 동점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어 시험성적의 점수 향상을 위한 무한 경쟁으로 학생들의 삶과 학습이 왜곡되고 있다. 현행의 내신성적관리 지침이 인위적으로 학생들의 지필고사 성적을 구분하여 법적으로

학생들을 점수에 의한 서열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정적인 법규이다.

다시 말해 동점자를 최소화하고 변별력을 극대화하는 평가에서 교육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전 과목에서 단한문제도 틀리지 않기 위해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열에 밀리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경쟁하고 있다. 즉, 내신에 교사와 교육의 자율성은 없다. 상급학교 진학 적격자 선발을 위한 기능만 있을 뿐이다. 이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중간고사가 기말고사가 수행평가가 대학입학시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상적으로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모집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은 2002년 9.62%에서 오히려 2004년 8.21%로 낮아졌으며 이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수시모집은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기에 내신으로만 선발한다고 알려져 왔었지만 사실은 밝혀진 일부 대학의 경우 정시 모집수준보다 더 낮았음이 밝혀졌다. 고등학교 교사들은 5%의 비중도 없는 교육활동을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런데 2005년은 양상이 달라졌다. 2008년 이후 입시안이 적용되는 올해 고1부터는 평가고사에 대한 부담이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수능을 목표로 한 경쟁은 점수를 더 따기 위한 경쟁이기에 전국의 60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체감이 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신상대평가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과의 상대적인 서열 경쟁이기에 그 체감정도가 한층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지난 2005년 5월 10일 서울시내 대학 입학처장 보도 자료에서 보듯 이런 힘겨운 고통의 결과가 실제 대학입학전형과정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 2) 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실시 첫 해인 1994년에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한 번씩 실시되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 및 응시자 수가 1994년에는 다른 해의 약 두 배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수 및 응시자 수는 1995년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해 오다가 2000년 이후에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2003년도 11월 지원자와 응시자 수는 각각 674,154명과 642,583명 이었다.

이를 보면 대학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대부분은 졸업시험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만약 국가가 나서서 치르고자 한다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활동이 잘 진행되어 교육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졸업자격고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그 취지상 대학연합회 같은 곳에서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전국의 학생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가주도의 지식중심 지필 선발고사이며, 교육목표의 성취수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서열을 매기는 고부담 시험제도이다. 독점화된 학벌이 사회의 지배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수능시험의 성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중심 시험이라는 점이다. 지식중심이라는 의미는 지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교과들의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일 뿐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유형의 시험은 출제자가 사전에 상정하고 있는 정답이 설정되어 있고, 수험자는 이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만 갖추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함정을 피하기 위한 반복 훈련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주입식 암기식으로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험은 수험자의 능력이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선다형의 지필평가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능력이나 경험의 질과 다양성이나 공동체적인 소양 등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계량화된 수치로서의 결과만이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는 당연히 학교교육을 철저히 왜곡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 목표를 개별 학교가 가진다 하더라도 국가주도의 선발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시험의 출제 경향과 예상되는 수준이 바로 학교와 수험생들의 학습 방향에 결정적인 지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시험은 교육활동관련자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있다. 교사이거나 학생이거나 심지어는 학부모들조차 시험에 정답이 되지 않는 사고를 할 수는 없다. 설령 다르게 생각한다 하

더라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시험 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교과서는 바로 외워야 할 전범이며, 시험과 무관한 현실은 가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 줄 세우는 획일적 시험이다. 현재의 수능시험은 그 제도의 도입 취지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줄 세우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 본래의 의도와 관련 없이 이 시험은 소수점까지 나누어 전국의 학생들을 수직적으로 서열화시키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열화된 대학에 학생들을 배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수능의 역할은 그것이 대학서열체제를 형성한다는 데에 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의 대학 특성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대학들은 소재 지역, 설립 유형, 설립 시기에 따라 신입생들의 평균적인 수능 성적 분포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 데 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장한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이유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고 나서서 수능과외 방송을 통해 입시를 과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인 EBS 수능방송은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는 수능방송에서 수능을 출제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수능방송에서 내신을 대비하겠다고 주장 하기도 하고 있다.

2005 수능이 진행되는 동안 EBS측은 매 교시가 끝날 때마다 수능반영률을 발표했으며, 결론적으로 약 80%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능 업무를 총괄했던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제의 성격상 반영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부에 "몇 % 반영했다" 는 보고도 없었으며, 공식발표도 없었다. 수험생 또한 전혀 반영률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반영률은 EBS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2008이후 입시안은 수능을 9등급제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여 수능에 의한 서열화를 완화 하고자 했다. 물론 첨예한 점수제보다는 등급제가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대 전형요강 발표에서 보듯 각 대학은 수능 등급을 지원서를 제출하는 기본 자격으로 활용할 것이다. 상대평



가 9등급에서 등급이 자격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일정 서열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지원서를 쓸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다. 세칭 명문대학이라는 대학들은 학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쟁 대학들보다 높은 등급을 기본 자격 요건으로 제시한다면, 수능은 실제 반영비중은 낮아지면서 점수제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하여 과목별 9등급이기에 수능은 여전히 예민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기에 학생들은 수능 또한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만 한다.

### 3) 대학별 전형

대학이 건학이념에 맞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사회에 배출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시 들여다보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다. 각 대학마다 다른 건학이념과 교육목표가 있다면,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우수학생의 개념이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선발 기준이 다를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학서열체제인 우리 사회에서는 획일적인 성적순에 따라 서열화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즉, 모든 대학의 선발 기준은 단 하나다. 점수에 의한 서열.

건학이념이라거나 교육목표는 본디 사립대학들이 학교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작성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다. 국공립대학은 어떠한가. 국공립대학은 개인이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국공립대학마다 다른 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은 단지 소재한 지역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국공립대학이 개별적으로 성적순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설립취지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대학별고사의 문제유형 역시 수시의 근본 취지인 건학이념, 다양한 능력 개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지필식, 일제형, 지식 측정 문제 방식인데 각 대학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이라는 이름아래 이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렇듯 대학별고사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공교육 기관이 입시부터부터 독립하여 정상화의 길을 갈수는 없다. 하기에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본고사식 논술고사의 시행은 학생들에게 사교육 의존을 크게 해 고교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이끌게 되며,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중의 학습 부담을 주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논술고사는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교육여건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약한 계층의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학별 전형이 우수학생 빼가기 경쟁, 심지어는 2004년 고교등급제 파동에 서 드러났듯이 출신성분우수자 모셔가기 경쟁이 됨에 따라 중등 교육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학교별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느라 들이는 시간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기에 어려울 정도이다.

더한 문제는 대학별전형의 의혹 문제이다. 이미 지난해 대학별 전형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의혹이 드러났으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사실 대학별 전형과정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기에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 4. 내신등급제를 다시 보자.

'내신등급제'란 학생부 성적을 현재의 5단계(수, 우, 미, 양, 가) 절대평가에서 등급마다 일정 비율을 고정시킨 9개 등급의 상대평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2008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2008입시안 기대효과중 하나로 "학생은 학원보다 학교교육을 중시하게 되고, 고등학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활기찬 교실 수업이 될 것이며, 대학은 학생선발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2008 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비중강화는 학교와 교사가 대입전형요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그동안 수능시험과 논술본고사의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실질 반영률이 매우 낮아 고교는 대학입시를 준비해주지 못하고 입시에 얽매어 전인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 고교는 단지 졸업장만 주는 곳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내신비중강화로 그러한 오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학입학과정에서 내신의 반영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내신, 수능, 대학별 고사 중 그나마 사교육 의존도가 가장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간 학교간 학력의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들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 학력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학력격차의 본질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연구나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학력 또는 학업 성취가 개인의 능력이나 학교의 교육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문화 자본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학력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가정의 배경요인으로 학생의 미래를 차별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기에 수능이나 대학별 전형 등 사교육 효과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전형 요소보다는 다양한 학교의 교육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사교육 요구가 상대적으로 덜한 내신의 반영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학교간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있다. 학교의 교육활동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내신중심의 대입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활동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단지 대입의 전형자료로서의 교육활동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의 의미를 전락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확보와 민주적 의사소통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과과정운영과 다양한 학교문화를 포함한 학생문화 개발, 민주적인 시민양성 등을 해낼 수 있을 때 학교는 입시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신중심입시는 학교를 단지 대학입학에 필요한 전형자료를 만들어내는 하위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고 공교육정상화라는 목표는 이를 수 없다.

지난 2005년 5월 20일, 오마이뉴스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수능 위주의 입시에서는 사교육이 상대적으로 강한 도시지역 특히 강남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세했으나 상대평가를 빼대로 하는 내신등급제는 사교육에서 소외됐던 지방 소재 학교가 수혜를 볼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내신등급제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내신비중이 높아진다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나 설문을 담당했던 교사들은 학생들 수업태도의 급격한 변화를 인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의 교육현실이 내신제도의 변화만으로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입학관계자들은 학교간의 특성 및 학력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채 학생부 비중의 확대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적용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일부대학에서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제기하나 이는 왜곡된 대학입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데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최근 내신강화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 내신은 고3내내 입시라는 주장, 이에 교육부는 가랑잎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무마, 친구와의 경쟁을 부추기는 비인간적, 비교육적 상황을 조성, 교사들은 학생들을 쉽게 통제하고 수업분위기조성을 쉽게 하기 위해 ‘점수를 깎는다’고 말해 사제간에 신뢰관계를 해치고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내신강화가 사교육비유발, 내신에서 치맛바람우려, 2005년 초, 일부학교에서 드러났듯이 내신부정사건 등이다. 그러나 학생들로 하여금 내신비중강화는 학교 밖의 사교육보다는 학교 안, 교사들의 수업에 충실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단은 공교육황폐화를 벗어나는 일에 시동을 건 셈이 된다. 그러므로 내신제 강화는 자연히 학력이 천차만별인 고교들에 대한 등급제 문제로 나타나기 보다는 국가에서 정한 고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것에 대한 확인과 인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 5. 대학별 전형이 강화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동안 논술고사는 수시모집 중 내신과 함께 고사의 한 형태로 대학별로 시행되어 왔다. 작년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의 고교등급제 시행의혹에 따른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세대의 경우 모집요강에는 1단계전형에서 학생



부(교과성적)을 60%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반영에 있어서는 기본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학생부(교과성적) 급간차이를 좁게 함으로써 학생부(교과성적) 상위 1%학생과 상위 10%학생간에 60점 만점 중 불과 0.79점 차이만 발생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내신보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는 2008학년 입학전형방침으로 논술비중을 정시모집에서 더욱 강화하였으며, '논술형본고사'란 명칭까지 사용하여 교육부의 본고사시행 금지방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는 논술로 내신 3등급정도는 뒤집을 수 있다고 한다. 사실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내신 3등급 차이가 날 리 만무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논술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논술비중을 강화시키려 하는 이유는 2008학년 대입제도에서의 내신제 강화로 학생 선발에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각 대학들이 수능이 중심인 현 대입제도아래 뿐만 아니라 2008년 대입제도에서도 논술고사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본고사식 논술고사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싹쓸이하겠다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교육부가 2002학년 대입제도를 통해 논술, 구술, 면접고사 등을 허용한 것은 학생들의 종합적인 판단력, 논리력, 창의력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고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당연히 고교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한도에서이다. 이러한 평가가 정부가 본고사를 폐지했던 것처럼 사교육비를 늘리지 않고, 고교교육의 정상화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이어야 한다. 더구나 그것은 국어, 영어, 수학 등 본고사에서 실시하고 강조되고 있는 주요교과의 성취도 평가여서는 안된다. 이는 더 이상 논술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의 지필평가이기 때문이다.

2004년 교육단체들은 그동안 각 대학들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고사 문제는 서울시내 주요대학(고려대, 서강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

대)의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시 논술·면접고사이며, 전교조에서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영어교사모임, 전국수학교사모임에 의뢰해 문제 분석이 이루어졌다.

주요대학별 논술·면접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시되는 문항으로 학생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며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 측이 내세우는 대학의 특성이나 건학이념을 고려한 문제는 없다.

둘째, 대부분 대학이 논술로 국어, 영어, 수학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시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적성검사도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별로 없어 변형된 본고사이다.

셋째, 난이도에 있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매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볼 때 대학별로 시행하고 있는 논술 및 심층면접고사는 과거 본고사식의 지필평가와 다름없음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본고사식 논술고사의 시행은 초·중등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이끌게 된다. 특히, 서울대의 2008년 입시방침이 발표된 이후 각 고등학교에서는 입시대책차원의 논술준비가 특기적성교육 강화는 물론이며, 정규 국어수업시간에 논술대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논술고사는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교육여건이 좋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 1달 학원수강료가 서울 변두리 학원만하더라도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하고 있으며, 강남이나 목동지역 학원의 경우에는 100만원이 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외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고액을 지출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대비 학원뿐만 아니라 논술대비로 학원과 과외를 전전할 것이고, 비용만 적어도 100만원이 넘을 것이다. 비강남지역의 학부모들에게는 너무 부담되는 비용으로 체계적인 논술대비 학원과 과외학습을 지출하기 어려운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6월이면 각 대학들이 서울대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같이 2008년 대입제도하에서도 특목고나 강남권 학생들의 대거 입학수용을 위해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2008학년 입시전형방침을 발표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노골적으로 국어·영어·수학의 고난이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수능의 반영비중이 현재보다 낮더라도 이러한 논술고사라는 명목으로 본고사의 부활을 내세울 것이다. 결국 이 본고사제도는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점점 심화시켜 계급재생산의 주요 수단이 되는 고사제도가 될 것이다.

각 대학들이 불법적인 본고사식 논술을 공개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2008년 입시에서 본고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공표하는 문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육부의 책임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통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제한기준으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와 함께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놓고, 이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문제 분석과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2002년 이후 각 대학들이 이렇게 논술의 탈을 쓴 본고사를 시행해왔음에도 2003년 한양대가 실시한 전공적성검사의 지필고사 규정으로 첫 재정적 제재를 한 이후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각 대학의 논술고사가 버젓이 본고사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것이다.

순수한 논술고사가 출제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부 산하에 교육전문가, 교육시민운동가 등이 참가하는 공정한 평가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며, 위반 대학에 대해서 단지 행·재정적 조치만이 아니라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와 함께 금지를 법제화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 6. 대학입시제도의 대안을 찾아보자.

### 1) 입시제도 제자리 찾기

우리 사회는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이다. 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학문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기회를 얻는 의미이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며, 단지 대학이 아니라 이른바 명문대학과 인기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대학입시제도의 틀이 바뀌면 중등교육 전체가 이에 따라 재편되어 버린다. 수능 과목에 따라 교과 편성이 달라지고, 논술 강화에 따라 논술 대비 수업이 진행된다. 이는 중등교육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 또한 자체의 교육과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기에 입시제도에 매달리고 있다.

하기에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입시제도의 대안은 입시제도의 제자리 찾기이다. 과도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입시제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제도 변경안 이전에 초중등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의 교육과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한다. 이런 방안을 먼저 마련한 후 이런 방안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학생들의 이동 흐름방안이 입시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커다란 변화는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교육주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의 사회적인 논의 틀을 구성해야 한다.

### 2) 학력의 본질 찾기

도움을 얻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보자. 지난 2005년 4월 25일 한겨레도쿄 특파원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여유 있는 교육'을 2년 했더니 초·중등생 성적·학습의욕이 상승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5·6년생 21만명과 중학생 24만명을 상대로 학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23개 과목 가운데 중학교 1년생의 사회와 수학을 제외한 21개 과목의 성적이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평



가 때와 동일한 문제가 30% 가량 출제됐는데, 이들 문제의 정답률이 상당히 나아진 것이다. 지난 2002년 4월 여유 있는 교육을 표방한 새 학습지도요령이 도입된 뒤 새 방침으로 학력저하 추세가 지속됐을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

또한, 유럽의 학교들을 보면 학교의 교육활동이 학생들간의 서열을 나누는 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원하는 교육목표에 가장 다수가 도달하는 데 교육활동의 중심을 두고 있다. 서열을 짓는 교육에서는 경쟁이 기본이다. 그러나 공동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협동이다.

입시경쟁, 학생들 상호간의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교육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미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 학력은 이미 학생이나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적 배경 요인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더더군다나 서열 경제 보다는 공동의 활동을 통한 목표의 도달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서열 평가보다는 목표 도달 평가로 평가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 3) 3불 법제화는 기본

교육부가 제시한 3불을 두고 논란이 크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3불의 내용을 다시 보자. 교육부가 제시한 3불은 각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에서 모든 자유를 다 부여한 후 남은 최소한의 규제이다. 이는 교육기회의 균등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3불의 내용인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구체적으로 보자. 본고사 문제는 앞에서 이야기했으므로 여기서는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만 보겠다.

먼저 기여입학제는 학부모의 경제적 기여 정도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 무관하다. 기여 입학에는 학생의 노력이나 능력, 학교의 교육활동 어느 것도 의미가 없다. 단지 학부모의 경제력만 있을 뿐이다.

고교등급제도 비슷한 것이다. 2004년 결과를 보면 각 대학들은 서울의 특목고, 서울 강남의 일반고, 그리고 강북과 지방의 학교로 등급을 지어 왔음이

밝혀졌다. 즉 어느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차별을 해 온 것이다. 고등학교가 평준화 된 현실에서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다. 짐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거주 지역은 경제력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고교등급제도 변형된 기여입학제인 것이다.

고교등급제나 기여 입학제는 교육을 부정하고 있다. 하기에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기회의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 4) 입시제도는 단순하게

서울대가 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의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언론보도 이후 본고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그렇지 않아도 내신의 비중 강화에 불만이 많던 대학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선발의 실질적 자율권을 대학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내신중심 전형이라는 교육부의 과장 홍보 탓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다.

좋은 대학의 입학이 교육의 지상과제인 입시경쟁의 상황에서 대입전형의 내용은 내신중심이건, 수능중심이건 학교교육의 정상화와는 무관하다. 수능중심이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이 번성하여 학교는 입시교육에 뒤쳐질 것이고, 내신중심일 경우 학교는 입시기관이 되어 입시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절차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에 대비한 준비는 늘어가기 마련이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모두 다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학생들은 너무나 가혹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 과정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고통이 되고 있다. 국제적인 비교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세계 최상위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서열에 오르기 위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입시제도를 복잡하게 할수록 고통은 가중되고 불평등은 심화된다. 물론 입시제도가 복잡할수록 배움과 교육은 그것에 대비한 활동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입시제도의 가장 최고의 개혁 방안은 단순해 져야 한다.



[주제발표문 3] - 구두 발표

## 2008년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김영운<sup>1)</sup>

---

1)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 경쟁적 입시제도의 문제점

남궁정<sup>2)</sup>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의 목적과 과정은 대학진학, 더 정확하게는 대학 입시에 맞춰져있습니다. 그것이 학교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교육이든, 그림이나 피아노를 배우는 예술교육이든, 체육교육이든 현재로써는 근본적으로 모두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현실 하나는 그러한 모든 것이 좋은 학벌, 사회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교육제도가 그동안 수 십 번이 바뀌었다고 하는 말에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교육과정은 2번이 바뀌고 입시제도는 4번 정도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매일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 대학에 들어가야 인간 대접을 받고 산다는, 걱정스럽고 조금은 암울한 말들을 들으며 19년을 살아왔습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TV에서 정치인들과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 어른들이 나와서 교육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 밥에 그 나물 같고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빼먹은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면 심야토론, 100분토론 자리에 앉아서 '올해는 변별력이 없었다, 내신에 부풀리기가 있었다, 수능부정이 있었다, 본고사를 부활시켜야 한다', 같은 대입에 관련된 이야기만을 하지 진정으로 당사자인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민을 갖고 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2) 민주노동당 청소년 당원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 핵심은 바로 서로를 따뜻한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경쟁적 입시제도에 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정도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자기만의 잘난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도와준 동료나 부모님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경쟁에서 이겼다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자신의 위치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경쟁보다 먼저 학교에서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교육일 것입니다. 저는 교육의 목적이 '경쟁' 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일본이나 미국의 입시제도 예를 드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 입시는 가르치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형식의 한가지일 뿐이라고.

이런 이유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쟁적 입시 제도를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을 내기위해 보는 '시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입시제도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말로 어떠한 것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는지 배운 것에 대해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점수를 내고 등수를 매겨 성적을 내기 위해 교과서의 특정 부분에서 배운 것을 달달 외우고 문제를 풀면서 그것을 끼워 맞춰 정답을 찾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교육이 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든 그런 형태의 시험을 보지 않는 과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가 있는지 없든지 간에 시험공부에 매달립니다. 저는 과연 그렇게 배운 지식이라는 것이 과연 살아가면서 얼마나 써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시험이 끝나면 중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잊게 되고 또 그렇게 배운 시험문제 형태의 지식들이 진짜 중요한 지식인지, 삶에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시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은 사람을 생각 할 줄 모르는 바보로 만듭니다. 그저 주어



진 것만을 충실하게 외우게 하고 다른 것들은 아예 모른 채로 살아도 좋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얻어진 지식도 자기가 정말 찾아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단지 남들과의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억지로 채워 넣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 성적을 매기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경쟁적 입시제도가 정말 잘못된 교육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문과 교양은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것을 알아야하는가' 라는 물음이고,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조적인 인재나 모두를 위해 필요한 엘리트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경쟁적 입시제도는 입시공부 이외의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을 전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는 배운다는 것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도 바깥에서 더 많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꿈이 있고 나이에 걸맞게, 하고 싶은 일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경쟁적인 입시제도 아래에서 우리의 이러한 꿈들은 모두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 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런 대학에 가기 위해 또 입시공부를 강요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학교 또는 학원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려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위에는 요리사가 꿈인 친구도 있고, 연극배우가 꿈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소질이 있고, 의지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학교에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무엇을 해도 쓸데없다. 시간낭비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그때마다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토론도 해보고, 다양한 사회참여를 해보는 것이 꿈이지만 입시에 눌러서 그런 것을 접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경쟁적 입시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학교 안에서조차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할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도 크게 막고 있고, 심지어 '공부' 를 이유로 0교시, 보충학습, 자율학습 등으로 우리의 시간을 억지로 빼앗아 가는 것이 경쟁적 입시제도입니다. 저는 경쟁적 입시제도가 공부라는 것을 핑계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 학교는 아이들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치활동과 특기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정말 소수점 하나로 탈락과 합격이 좌우되는 경쟁적 입시제도 아래에서는 친구를 그대로 순전히 친구로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모두가 나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들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결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없고, 사려 깊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인성교육' 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쟁적 입시제도는 우리의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베푸는 마음, 나와 다른 존재들을 넓게 안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느끼게 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는 폭력이 자주, 평소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저 통제해야만 하고 공부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선생님들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가하는 체벌등도 그렇고, 학교폭력 문제도 멀리 내다보면 모두 경쟁적 입시제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목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사람을 사람답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이미 죽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적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이러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머릿속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심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끔 한다는데 있습니다.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은 사회에서 낙오자로 평가받게 되고, 엄청난 좌절감과 슬픔,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죽음, 자살까지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자살한 열 몇 명의 친구들을 추모하면서 내신등급제를 비판하던 청소년들은 '우리를 돼지고기처럼 등급으로 나눠서 경쟁하게 하지 말라' 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등수를 매기는 '상대평가' 에 대한 비난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자물쇠를 채운 사물함 속의 책을 누군가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고, 입시경쟁을 위해 친구 관계도 끊어야 한다는 말이 선생님들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교를 소재로 하는 괴담 중 흔히 쓰이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2등을 하는 아이가 자신이 1등을 하기 위해 1등 친구를 죽인다. 2등은 바라던 대로 1등이 되고 죽은 친구는 유령이 되어 2등에게 복수를 하러 찾아온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적어도 경쟁적 입시제도에 내몰린 청소년들과 학교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적 입시제도는 이렇듯 학교와 교육이 옆 사람과의 경쟁만을 강요하는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모습을 띄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경쟁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교육을 어른이 되기 위해 일부러 고난과 시련을 견뎌야 하는 대단한 의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대학에 가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하지만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경쟁적 입시제도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소위 SKY, 명문대들은 정작 세계에서 100위안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 낮은 대학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적 입시 제도를 충실히 따라 대학에 들어가면, 일단 자신의 전공, 학문과 연구를 포기해버리고 취업준비에 몰두하거나 법조인,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경쟁적 입시 제도는 정말로 대학에 가면 그나마 12년 동안 대학을 가기 위해 배워왔던 것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경쟁과 고통은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쟁적 입시제도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 또는 내 친구가 고통을 받는 문제이고 시험이 끝날 때마다 뉴스를 보기가 겁날 정도로 아이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지금 사안이 매우 심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계속 교육정책을 수정하고 개정해 나간다고 해도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원칙 중 하나인 경쟁적 입시 제도를 바꾸지 못

하면 “전인교육” 이니 “21세기에 걸 맞는 인재” 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봐라. 모르면서 말이 많다. 대충 그대로 살자’ 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쟁적 입시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입시 때문에, 전 세계에서 입시 때문에 한 해에 2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자살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두기에는 분명 잘못된 것이 있고 문제점이 눈에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교육당국,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전 사회적인 논의를 해서, 이제는 정말 이토록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쟁적 입시 제도를 바꿔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가능합니다. 다른 세계는 가능합니다. 모두들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나가는 데 앞으로도 힘냅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내신등급제, 이렇게 생각한다

윤태우<sup>3)</sup>

작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성적 부풀리기 및 사교육비감소를 위해 이른바 '내신등급제' 라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올해 2008학년도 고1학생들은 내신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신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학생뿐만이 아닌 교사 학부모 모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1. 내신강화로 수업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생님들이 좋아지는 만큼 학생들은 어렵다

얼마전 어느 신문기사에서 내신등급제시행이후 학교수업분위기가 좋아져 선생님들이 편해졌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업분위기가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만큼 학생들의 부담은 날로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루타를 아십니까? 이것은 과거 제2차세계대전때 일본에서 전쟁에 쓰일 화학약품실험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실험재료로 쓰였던 말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 내부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학생들은 '현대판 마루타'라 일컬을 정도로 학생들의 고민과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아이에게 물어보아도 '너무 힘들어서 못살겠다.' '하필 왜 우리나라?' 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1학생뿐만이 아닌 중학교 3학년학생들도 '내년에는 우리도 실험재료로 쓰일 것이다.' 라는 농담을 들은 적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3) 내신등급제반대카페 운영자

이미 현실은 너무 심각한 상태이고, 중간 기말고사를 볼때마다 심험문제에서 한문제가 틀리면 학생들은 매우 불안한 실정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등급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가 "한문제 틀리는 게 인생이 달라지니 이게 과연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나. 재수한다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과연 이제도가 다수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었나" 며 말을 하였습니다. 1문제가 틀려서 점수가 내려가면 1등급학생이 2등급으로 내려가고 2등급학생은 3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체육,미술,음악같은 실기시험조차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모든 과목들 중에 한가지라도 못한다면 그 학생은 좋은 등급을 받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어느 누가 걱정과 부담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모의고사를 각 학교에서 치렀습니다. 물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고3때 내성적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지하철로에서 아파트옥상에서 한강다리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너무 힘들어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겠다는 학생이 생겨났습니다.제가 아는 어느 학생도 이러한 심리적부담에 못견디어 결국은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 라고 반문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요.그렇지만 오히려 현 내신등급제가 학생들의 의지력과 생존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인간은 참는데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학생은 사람이니 노예도 아니며, 마루타도 역시 아닙니다.

### 2 시험문제도 어려워지고 선생님들도 애들 잡아먹는 제도라 인정한다.

방금 제가 시험문제중에서 한문제가 틀리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시험문제도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문제 난이도가 어렵고 해당하는 점수의 비중이 크니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됩니다.



문제를 푸는 학생뿐만이 아닌 시험문제를 출제 하시는 선생님들조차도 매우 부담이 되신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어느 국어선생님께서 수업하시다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문제를 푸는 “너희도 부담이지만 솔직히 문제를 출제하는 우리들조차도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 그 만큼 어렵게 만들어서 내야하니 우리들도 솔직히 말하자면 너무 힘든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교 일부 선생님들도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신등급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웃긴 것은 저희 담임선생님말씀도 중간고사를 앞둔 몇 주 전에 등급제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어찌보면 한마디로 너희들을 잡아먹겠다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신등급제가 학생들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만이 아닌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인정 한 것인데 교육부관계자님들께서는 무어라 말씀하실 겁니까?

### 3 내신등급제로 인해서 사교육비 줄었다는데 전혀 줄지 않았다.

작년 2004년 안병영 전 교육부 총리께서 내신등급제에 관한 안전에 대해 발표를 하실 때 “사교육비절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내신등급제를 시행한 이후 사교육비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과 다름 없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학원이나 과외다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내신등급제로 내신의 비중이 커진 만큼 학원에서도 이것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공부어나 충실할 것이지 그럴거면 학교다니지 말고 학원다니서 공부해라”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진 만큼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학원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교육비만 더 높아졌고 학원들만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것이지요.

저희 반을 보아도 대부분의 반 아이들이 학원이나 과외에 다니고 있습니다. 평일 학교마치고 학원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생들은 학원에 시달립니다. 학생들도 힘들고 사교육비걱정에 학부모님들은 한숨만 나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학원 다니면서 사교육비 내기조차 힘듭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원에 보내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결국은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내신등급제 교육을 등급으로 만들어 결국은 빈부격차까지 만듭니다. 과연 교육부에서는 이 말을 듣고 무어라 말씀을 하실 겁니까?

### 4 내신등급제로 친구들 간에 경쟁을 부추긴다.

내신등급제로 인해 시험문제들이 어려워진 만큼 학생들의 경쟁심이나 서로에 대한 증오감과 이기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부분 신문을 통해서 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로 모든 학교가 시험기간이었던 어느 날 저에게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저에게 울면서 이러한 전화를 하였습니다.

목소리를 들어 보니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저에게 ‘나 정말 다른 애들 때문에 내가 등급이 내려가는 꼴은 절대로 못 봐. 정말 지금 당장 아이들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야.’ 이러한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꺼낸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흥분이 가라앉아 끝났지만 친구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친구의 증오심이 얼마나 커졌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친구의 교과서나 문제집 노트가 없어지고 친구의 노트를 찢어버리는 일은 그 학교만의 문제만이 아닌 저희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반에서는 교과서가 없어지고 노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등급을 위해서 친구까지 버려야 하고 우정이라는 단어는 사사로운 감정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교육의 터전이지 전쟁터가 아닙니다. 차라리 교육대신 총칼을 주시지 그러시나요? 저희는 공부하는 학생이지 군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야 하고 나 한사람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친구를 죽이고서라도 올라가야 합니까?



“경쟁”. 민주사회에서는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발전도 중요한 만큼 화합도 중요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등급을 위해 서로 화합하는 것보다 경쟁만을 부추기는 것은 스파르타교육체제이며 학생들을 비인간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인간대신 괴물로 만들실 건가요? 제 친구 중 한명이 이러한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이제는 교육부 단독으로 교육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아야 할 우리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게 해달라며 요구하였습니다.’

어느 교육정책이건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야지 교육부의 독단적인 방법으로 만든 교육정책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페널토론문 3]

## 입시제도 도입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라

이아라<sup>4)</sup>

육십년 동안 서른 다섯번, 바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 온 숫자입니다. 지난 동안 수차례 교육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학생들은 교육제도가 학생들에게 알맞게 변화한 것이라고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제도가 경쟁중심을 강요하는 줄 세우기식의 입시제도에서 벗어나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고, 개개인의 숨은 자질을 발견해 이끌어 내며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의 근본적인 지향점과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구조에 맞게 변화하였는지, 또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들어보지도 않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진 않았는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입시제도가 말뿐만 바뀌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였는지? ㄱ에서 ㄴ으로의 순서를 ㄴ에서 ㄱ으로 조금씩 자리만 바꾸고 특정 분야의 반영 비율을 늘이고 줄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차례 교육제도가 바뀌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는 경쟁 강화라는 본질이 뿌리깊이 박혀있습니다. 그 곳에서부터 출발해 학생들의 불만과 절규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입니다.

4)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대표

2008학년도 입시제도인 내신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현 고1 학생들은 지금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친구의 공책을 찢어서라도 자신의 내신 성적을 올려야 하고, 졸린 눈을 비비며 밤을 새워 수행평가를 준비합니다. 수능과 논술을 위해 새벽 2시까지 과외를 받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현실을 보고도 과연 지금의 교육제도가 교육당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육제도라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교육제도 속에서 학생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규의 목소리가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이 지금의 교육제도에 만족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 교육당국은 지금 학생들은 어리다는 편견어린 시선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근래에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5월 7일 입시경쟁에 희생되어 안타깝게 죽음을 선택한 친구들을 위한 촛불 추모제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청소년들의 분노가 일시에 분출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짓눌려 있던 청소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와 경쟁하기 싫고, 입시와 경쟁만을 강요하는 이 교육제도가 싫고, 표현의 자유를 침탈하고 비인권적인 두발규제도 싫다는 학생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학생들은 결코 어리고, 생각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속 시원하게 목소리를 낼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촛불 문화제 참가 내내 질서를 잘 지키면서 어른들이 우려했던 돌발적인 행동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고, 또한 촛불 문화제가 끝난 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를 줍는 학생들의 모습은 너무도 성숙했습니다. 오히려 그 날 광화문에 나왔던 수십명의 교육당국의 관계자들이 더 초라하고 웅색해 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마치 무슨 불법 집회 인양 수많은 경찰들을 배치시키고, 교사들까지 그 자리에 나와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가는 그런 삼엄한 경계의 시선을 학생들이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암묵적인 제지들은 엄연히 학생들의 성숙한 의사표현을 막는 것입니다. 성숙했던 학생들에 비해 교육당국의 그런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했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절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지금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입시제도가 바뀔 때 따라  
교실에선 냉기가 흐르고 한 과목 한 과목 망칠 때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 과목 망치는 걸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게  
아니라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한 과목의  
점수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고  
친구를 없애야만 내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신등급제로 인해서 진정한 친구를 잃어가는  
이런 학교 정말 싫습니다.

· 등급제 때문에 친구도 잃고, 살 의욕도 없어요. 그 좁은 사물함 구멍에 자물쇠가 3개  
입니다. 자유롭게 사물함과 책상 서랍을 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요. 아직은 친  
구들과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 우리는 기계로 찍어내는 똑같은 상품이 아닙니다.  
왜 한 가지 성적이라는 문서로만 평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을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의 꿈을 성적이라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부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망을 성적이라는 것으로 짓밟으려 하지 마십시오.



· 이 교육제도 때문에 엄마 아빠 얼굴도 못 봐요.  
공부도 못하는 딸, 시험 못 보는 딸을 위해 사교육비를 써버리는 부모님 얼굴보기 미안  
해요. 제발 교육제도 좀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좁은 사물함 구멍에 자물쇠를 3개나 달아야만 하는 지금의 학교현장. 학생  
들은 지금 희망이 되어야 할 학교 안에서 희망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의 이런 모습  
은 찾아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상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예를 들어 청소년 대표가 교육정책을 바꾸는 자리에 참  
여 / 설문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가 마련  
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모장]

## 메모장

## 청소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찬성/반대 패찰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작년 몇 개 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학에서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나중엔 인정했고 정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고교등급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2) 최근 서울대에서는 본고사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강남에서는 논술준비에 여념이 없다는데요. 본고사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3) 지난 중간고사에서 내신등급제의 시행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서술형문제가 도입되며 상대평가로 인한 친구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 때문에 자살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기도 했었지요. 내신등급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4) 대학이 학생들을 줄세워 선발하는 한 입시제도에서는 어떤 것을 시행해도 경쟁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대학을 평준화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학평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5)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 교육부 답변에서는 현행 교육제도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살리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함께 촛불을 들고자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편지 오늘은 경쟁자가 아닌 서로 친구가 되는 날입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입니다. 오늘 오후면 한국의 학생들이 “입시위주 교육 반대” 라는 외침으로 촛불을 들게 됩니다. 억눌리고 찌들린 삶에 희망을 달라는 학생들의 외침에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저 또한 한 학생의 어머니로써 학생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학생들이 만든 카페에 들어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읽어 봤습니다. 그 안에서의 학생들의 주장은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를 시험보는 기계로 간주하지 말라. 우리를 교육정책의 피실험물로 사용하지 말라. 학교는 친구와 함께 도와가며 공부하고 자라나는 곳이지 오직 경쟁을 통해 대학진학만을 위한 곳이어서는 안된다!” 제 나름대로 학생들의 주장을 요약해본 것입니다. 소박하면서도 당연한 주장입니다. 학생들은 내신등급제를 반대하는 것이 본고사를 도입하라는 것으로 읽혀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입시가 학생 하나뿐 아니라 온 가족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있는 나라. 대학입시에서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는 나라. 어떤 대학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닌,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궁금한 나라. 대학이 줄지 워진 것처럼, 사람들도 줄지워진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모두 피해자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대학과 사람을 한줄 세우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한, 학교는 친

구들과 어울려 함께 공부하는 행복한 곳이 아닌, 시험 경쟁의 경기장일 뿐입니다.

비뚤어진 이 사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학생들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경쟁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시위주의 학교와 사회에서 죽음을 택한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죽음을 택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잘못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때 묻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파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함께 문제제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 비정상적인 사회를 정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혹자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쩌란 말이나? 대안을 내봐라” 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안이 없으면 문제제기조차도 하지 말라는 억압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외침은 정당합니다. 그 외침을 듣고 교사, 학부모, 정치인, 교육부, 대학들이 깊게 고민하여 답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침에서부터 대안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민주노동당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으로써 여러분에게 이 잘못된 교육과 사회를 바꿔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내신중심의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줄세우기 방식이나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수능이라는 시험 하나로 한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면 안 됩니다. 아니,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학입학이라는 그것 하나로 한 사람의 운명이 정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신 등급제는 모든 학생들을 단지 시험 성적 결과에 따라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서열을 메기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과 성적만이 아닙니다. 교육은 개인의 관심과 특기, 꼭 학교 공부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잠재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점수로 환산되지 않는 인간의 여러 측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신



은 단지 시험 성적만이 아니어야 합니다. 손쉽게 평가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오만함이 학생들을 점수라는 숫자에 가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외침 중에서 무엇보다 가슴 아프게 들려왔던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적으로, 경쟁자로만 느껴져요”, “서로 돕고 함께 고민하기 보다는 서로 경쟁하여 누르려고만 하게 되요” 모든 교육은 경쟁이전에 서로 협동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순위를 매기는 것 이전에 한 사람 한사람을 그 자체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년 08입시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교육사회단체들이 상대평가제의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내신의 기본은 줄세우기가 아닌,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풍부한 성장 기록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절대평가를 받아들이기에는 학벌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내신부풀리기의 문제가 있다면, 상대평가의 요소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라도 고교내신은 한 인격체의 전체적인 성장기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상대평가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최소화하여 우리 학생들이 친구를 적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본고사를 부활하겠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고사는 결코 실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대가 “논술형 본고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논술형 본고사”라는 말은 결국 형식은 논술이지만, 실제 내용은 본고사라는 말입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일선 대학에서 실시했던 논술고사 시험지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말이 논술이지, 사실은 본고사 그 자체였습니다. 수리형 논술, 언어형 논술, 과학형 논술, 영어형 논술, 논술이라는 말은 외피에 불과했습니다. 본고사가 부활하면 우리 학생들은 결국 이중, 삼중의 시험고통 속에 빠지게 되고, 본고사 준비를 위한 사교육 열풍 속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의 학생들만 유리해 집니다. 보다 종합적이고 깊은 지적 소양에 대한 교육은 대학입시 교육에 매몰되지 않은, 정상화된 고교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수능 또한 최소한의 자격고사로 전환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교교육이 정상화 된다면, 더 이

상 전국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등급을 새로이 나눌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3불(不)정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서울대가 본고사를 하겠다는 발표에 처음에는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다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허용가능하다는 식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이 정책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이 정말 교육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입장과 정책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촛불집회에 징계운운하기 이전에 교육부는 자기 자신부터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학교간 학력차이를 말하면서 고교등급제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간 학력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기본 체제인 고교 평준화 정책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평준화 정책은 입시전형에서만 통합전형을 하는 이른바 “뽕뽕이 평준화”일 뿐입니다. 학교간 학력차를 말하기 전에 진정한 평준화 완성을 위해 교육환경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교 등급제를 도입하면 고등학교도 대학과 같이 일렬로 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촛불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린 중학생, 초등학생 동생들까지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시험기계로 살아가게 만들 고교 등급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기여 입학제는 당연히도 또한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돈이 학벌을, 학벌이 권력을 낳고 또 돈을 낳는 부정의 순환 고리는 깨어져야 합니다.

여러 대학들에서 변별력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대학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 대학들은 순위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뽑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의 서열을 유지해야만 대학의 존엄이 서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점수 몇점 차이로 대학의 서열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까요? 그렇게 메겨



진 서열이 그렇게 자랑스러울까요. 점수 몇 점 차이로 한사람의 인생을 갈라놓고, 평생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딱지붙이기가 과연 진정 대학교육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스스로의 서열구조 속에서 얻는 달콤함을 잊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몇 개 대학이 함께 모여서 통합입시전형을 하고 공동학위를 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는 어느 대학 학생이라는 우쭐함이나, 나는 어느 대학 학생이라는 초라함을 떨치고, 서열구조에 안주하는 대학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진정 선발중심이 아닌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려운가요?

학생 여러분, 오늘 집회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외침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침이 우리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저 또한 경청하고 함께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친구와 삶을 빼앗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친구와 삶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더이상 시험에서의 경쟁자가 아닌, 함께 고민하고 어깨 걸고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고 싶은 마음으로 편지 보내드립니다. 중간고사 힘드셨죠? 오늘 광화문 촛불행사가 서로 위로하고 힘겨움을 푸는 자리도 되었으면 합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 하길 바랍니다.

**2005년 5월7일**  
**국회의원 최순영**

<참고자료 2> - 3불법제화 발의 및 대학입시관련 기자회견문(05/18)

## 3불법제화 발의 및 현 입시제도문제와 관련한 민주노동당·교육주체의 긴급제언 [민주노동당·교육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1. 2004년,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가슴 한 가운데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났다. 단지 명문 사립고, 특목고, 강남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지 논술을 빙자한 대학별 본고사를 준비할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 진학의 기회마저 박탈당했던 것이다. 학벌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학생들을 입시부담에서, 학부모들을 사교육비에서 해방시키고 나아가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는 수많은 이들의 요청을 외면하고, 교육부는 2004년 10월 “2008이후입시제도개선안”이라는 미봉책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2. 교육 평등권을 위배하고 공교육을 파탄시킬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어느 때 보다는 높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금지, 대학별 본고사 금지, 기여 입학제 금지라는 3불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학교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추진하려는 대학들과 타협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순위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뽑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점수 몇 점 차이로 한사람의 인생을 갈라놓고, 평생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딱지붙이기를 즐기면서, 스스로 서열구조 속에서 얻는 달콤함을 잊지 못하는 대학들이 과연 대학 경쟁력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3. 오늘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3불 법제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다. 이 법률안은 민주노동당과 교육사회단체들이 교육 불평등 해체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3불법제화는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아주 당연한 첫걸음일 뿐이다. 3불 법제화는 “입시위주 학교가, 학벌주의 사회가 싫다”는 학생들의 외침에 대한 당연한 응답이다.

4.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경쟁 위주 학교에서,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시험의 압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급기야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안타깝게도 버리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성장시켜야 할 교육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교육이 되어 버린 현실이다. 우리 교육 현실은 긴급한 정책 전환이 필요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동당과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와 청소년들은 현재의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제언을 하는 바이며,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3불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실질적인 지도감독의 의지가 부재하다면 다시금 편법이 활개를 칠 것이다. 교육부는 3불 정책을 추진 의사를 강고하게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을 제출하라.

둘째, 대학은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 부활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내신 실질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 서열화된 체제 내에서 학생 점수 순위로 대학의 위엄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로는 더 이상 한국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대학은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입학 전형 기준을 마련하고, 서열체제 해소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들은 통합전형을 실시하라. 현재의 학점교류, 학생 교류의 폭을 넓혀서 대학들 간의 통합전형을 실시하여 대학 서열체제를 해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부는 08년부터 현재의 각 지역 4년제 국립대학간의 통합전

형, 각 교육대학 간의 통합전형을 실시하여 대학입시과열과 서열체제를 해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내신의 상대평가를 최소화하라. 상대평가는 교육의 본질을 해체하고, 학생들을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로 만들고 있다. 교육 본연의 의미, 협동적 교육관계를 재건해야 한다. 또한 내신을 학생에 대한 전인적인 성장기록으로 실질화하라. 교과 성적이나 각종 경시대회 수상경력만으로는 성장하는 인격체로서의 학생을 온전하게 평가할 수 없다. 내신에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풍부하게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가 작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만들었던 교육발전 협의회가 단 한차례만의 회의를 하고 공전되고 있다. 교육부는 유명무실한 교육발전 협의회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교육정책 협의기구로 운영될 수 있게 하라. 또한 교육부는 대학 서열체제 해체, 학습부담 경감,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해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대학 입시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5. 오늘 민주노동당과 교육사회단체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대학서열체제를 해체하지 않는 한, 입시문제를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공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대학서열체제는 한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으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교 평준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건설을 통한 대학 평준화의 기틀 마련을 통해 학력주의 철폐와 진정한 교육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5년5월18일

**민주노동당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교육학부모회**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7
----------	------

발의연월일 : 2005. 5. 23.  
 발 의 자 : 최순영·단병호·천영세  
 심상정·노회찬·현애자·이영순  
 강기갑·권영길·조승수의원(10인)

제안이유

대학입학전형시 고교를 등급화하여 수험생의 전형점수를 차등하게 부여하는 고교등급제는 다수 수험생의 교육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교육평등권에 위배되고, 대학별 본고사는 학생의 잠재적 학습능력의 평가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하여 고교 교과과정 외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이 논술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적으로는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고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으며, 기여입학제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교육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교육기회의 공정한 부여에 위배되므로 이를 각각 금지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의 장에게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함(안 제34조의2제1항).

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본고사를 금지하고, 논술고사를 본고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

다. 대학에 대한 기여정도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4조의2제5항).

라. 이에 위반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명령에 의하지 않을 경우,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함(안 제34조의2제6항 및 제7항).

마.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에 의한 선발은 해당 학생을 무효로 하며, 본고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조의2제8항 및 제64조제2항제5호).

### 高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高等教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高等教育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선발방법 등의 제한) ①대학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출신에게 일정한 우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정학교출신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2.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②대학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미한다)의 성적 및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논술고사가 시험시간·문항의 수·문항의 분량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

은 이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목과 관련된 지식을 시험하기 위한 경우

2. 특정주제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⑤대학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기여정도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보조의 삭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정원의 감축

⑧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선발은 무효로 한다.

제6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부 칙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高等教育法 &lt;신 설&gt;</p>	<p>고등교육법 제34조의2(선발방법 등의 제한) ①대학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출신에게 일정한 우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학교출신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li> <li>2. 학교별로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li> <li>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li> </ol> <p>②대학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의미한다)의 성적 및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p> <p>③대학의 장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논술고사 외의</p>

필답고사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논술고사가 시험시간·문항의 수·문항의 분량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이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대상으로 하는 교과과목과 관련된 지식을 시험하기 위한 경우

2. 특정주제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⑤대학의 장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대한 기여정도를 입학전형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보조의 삭감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

<p>第64條(罰則) ① (생 략)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4. (생 략)          &lt;신 설&gt;</p>	<p>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정원의 감축          ⑧대학의 장이 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선발은 무효로 한다.          第64條(罰則)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p>
--	--

<참고자료 4> - 3불법제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안설명문(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저는 오늘 우리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3불정책, 즉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대학별 본고사 금지를 법제화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불 정책은 현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의 기본 골격입니다. 물론 3불만으로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불이 무너지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앞으로 3불을 포함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서열폐지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4년, 고교등급제 파동으로 많은 학생, 학부모들의 가슴엔 치유할 수 없는 멍에가 지워졌습니다. 단지 특정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대학진학의 기회 자체가 봉쇄된 것입니다. 고교등급제가 실시되면 이는 사실상의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해체이며,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고교입시 전쟁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작년,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에 대한 수많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목고 신설과 대학들의 특목고 동일계열진학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하여 또 하나의 변형된 고교 등급제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를 법적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현재의 평준화 정책의 유지와 특목고의 입시 교육기관전략을 방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알아서 자율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올해 발표되고 있는 대입전형안을 봤을 때도, 대학은 언제든 틈만 있으면 고교등급제를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과 집행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여입학제는 현재 시행하는 대학은 없으나,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이 일부 대학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여입학제는 현재의 대학서열체제, 학벌주의 사회에서 학력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돈으로 권력을 구입



하는 것입니다. 기여입학제에 대한 명확한 금지 법제화를 통해서 기여입학제 시도 자체를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대학별 본고사 실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분분합니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는 대학들이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를 실시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대학들이 여전히 논술을 빙자한 본고사 실시계획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대학들과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별 본고사는 사교육 열풍을 일으킬 것이며, 겨우 정착해 나가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엄중한 법집행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별 본고사 금지를 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드린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3불법제화는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3불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때보다도 높은 이때 교육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 공공의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불 법제화는 사회적 공공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디 본 법안의 제안 취지를 온전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